

중고 선풍기로 나눔 실천하는 동화초 4학년 윤수진 학생 인터뷰

“수리도 척척... 시원한 ‘나눔’... 즐거워요”

11세의 어린나이에 게임, 장난감보다도 선풍기를 좋아하는 소년이 있다. 바로 윤수진 군이 그 주인공이다. 어릴 때부터 선풍기에 관심을 갖더니 지금은 척척 수리 하고 선풍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눔도 실천하고 있는 윤수진 군을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선풍기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어릴 때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면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왜 따뜻한 바람이 나올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집에 있는 선풍기를 관찰하게 됐고,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서 선풍기를 좋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선풍기가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아버지와 서울 삼촌이 원리를 설명해 주면서 이해도 되고 재미있었어요. 지금은 선풍기만

봐도 모델명, 역사, 특징까지 알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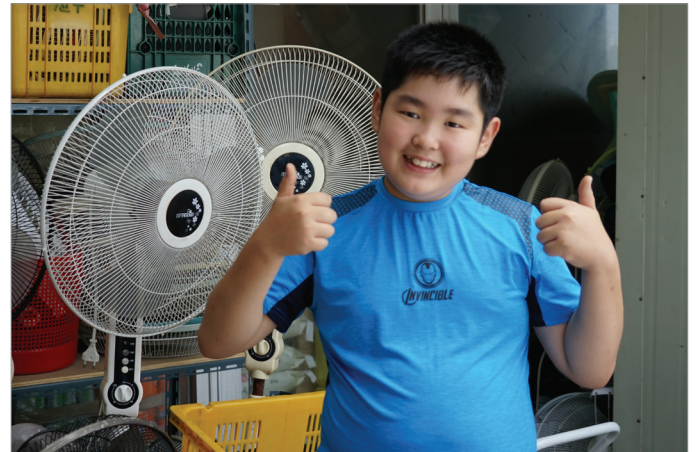
- 보유하고 있는 선풍기 수는?
하나 두 개씩 모으다 보니 지금은 150여대의 선풍기가 있어요.

선풍기들은 중고장터나, 빈티지샵 등에서 구매하기도 하고 동네를 돌면서 버려져 있는 선풍기를 가져오기도 해요.

선풍기가 많이 생기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그만 가지고 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제일 많이 지원해 주시고 있어요.

- 보람을 느낀 점이나 어려운 점은?

선풍기를 찾으러 다니고 고치는 일은 항상 즐거워요. 어려웠던 부분은 없지만 처음에 배선을 연결할 때 서툴러서 전기에 감전될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지금은 반드시 전기 테스트 후 작업하고 배선 연결도 자신 있어요.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아무래도 고장이 나서 안 돌아가던 선풍기가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예요. 오래된 모델, 벽걸이형 등 대부분 다 고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보람은



윤수진 학생이 선풍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선풍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할 때인 것 같아요.

- 선풍기를 기증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선풍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곤 했었어요. 그러다가 소문을 들은 동네 아저씨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증을 하는 것이 어떤지 물어봤

고 그때부터 기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더웠는데 제가 고친 선풍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고 행복하게 해 준다는 사실이 너무 즐거워요. 요즘에는 중고 선풍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요.

사회복지인 화합·결속 다진다

8일 제주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나눔대축제

제주사회복지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주관하는 ‘제19회 제주사회복지

의 날 기념식 및 2018 제주 나눔대축제’가 오는 8일 오전 10시 제주국제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다.

‘포용적 복지로 제주의 희망을 밝히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기념식은 축하공

연에 이어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 사회복지사업윤리 선언문 낭독, 기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제주나눔대축제가 열린다.

나눔대축제는 다채로운 무대공연과 나눔상자 만들기, 1000인분 비빔밥 나눔 ‘삼촌밥 먹영 감사’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진다.

특히 도민들로부터 기부 받은 도서를 무료 배부, 교환하는 나눔 도서관과 나눔 장터, 무료사진촬영, 나눔 카페&찻집,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더불어 나눔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나눔을 생각하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도 동시에 진행된다.

지면소개

■ 종합	3면
“당신의 소리 손으로 해보세요”	
■ 사회복지소식	4면
제주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우수’	
■ 오피니언	6면
시론·칼럼·기고	
■ 특집	7면
‘JDC 이름 알자리 사업’수기 공모 수상작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도내 사회복지 인권향상을 위해 법률 홈닥터가 달려가겠습니다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이용자·사회복지종사자·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1. 인권상담 2. 소송 절차 안내 3. 법률구조기관 등 연계 4. 법문화 출장 교육 등

신청 방법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예약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상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법률홈닥터에서 신청
▶ 전화상담 :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064)702-3782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장애인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 추진

고은실·고현수·현길호 의원 주최 정책 간담회



장애인 평생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과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8일 제주도의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간담회는 지난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

이 평생교육법으로 옮겨와 관련 규정이 일원화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체계를 구축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에 따라 제주도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법 개정 취지에 적합한 장애 평생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홍숙희 제주평생교육장 학진흥원 교육지원부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도와 교육청 간의 업무 협

조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로드맵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은실의원은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도교육감의 책무를 강조할 수 있도록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현수·현길호 의원은 “이제 걸음마 수준인 장애인 평생교육의 제도개선과 향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제주교육청과의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엄마들이 수놓음 육아 정책 알린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수놓음육아 돌봄 정책을 알리기 위해 엄마들이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2월 말

까지 수놓음육아나눔터에서 수놓음육아 활동을 하고 있는 엄마 10명으로 구성된 ‘수놓음육아 엄마 홍보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사진>

홍보단은 월 1회 이상 수놓음육아 활동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해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수놓음육아나눔터 20 곳을 중심으로 부모 자조 모임 활동 및 돌봄 공동체 활동 현장 등을 집중 취재함으로써 수놓음육아 활동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보장구 신청하세요”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최희순)는 경제적 여건으로 보장구(휠체어 등)를 구입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수동휠체어 3대, 전동휠체어 5대, 전동스쿠터 2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이 이뤄지는 보장구는 센터로 기증을 받

아 수리와 점검이 완료된 장비들이다.

신청기간은 10월 19일까지이며, 장애상태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 선정된다.

지원 대상자는 내부 심사를 통해 10월 23일 홈페이지(<http://jcil.or.kr>)에 공지할 예정이며 지원 받는 이용

자의 체형에 맞게 컨트롤러 위치 변경 등의 사용편의도 함께 제공 된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직접 방문 하거나 팩스(070-4544-9161) 및 이메일로 하면 된다.

문의=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064-751-9103).

차세대 복지서비스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효율적이고 정교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190여종의 중앙부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대상자 2,000만여명의 자격과 수급 이력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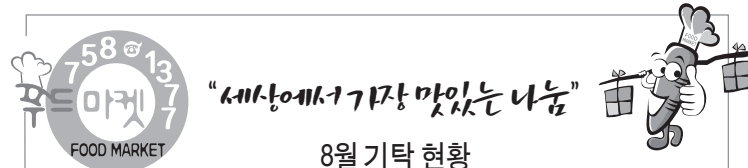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2022년부터는 복지전달체계에 정보통신(ICT) 신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국민 복지체감도, 공무원 업무 방식 등 복지 서비스 전반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우선,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높아지는 ‘따뜻한 복지’가 구현된다. 복지로·읍면동 방문 이력, 다양한 공적

자료 등을 분석해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시스템이 미리 알려줌으로써 찾아주는 복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와 복지·돌봄·보건·정신건강 등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자원 및 서비스 정보가 연계돼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끊임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복지’가 구현된다. 수급 자격 자동 판정 등 업무 처리 효율화, 직관적 화면 설계, 업무도우미 시스템 등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끝으로, 지원 누락·중복 지급·부적정 수급을 방지하는 ‘정교한 복지’가 구현된다. 수급자격을 재조사하는 확인조사 주기를 단축(6개월 → 매월)해, 부적정한 복지급여 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8월 기탁 현황

▲금강축산유통=축산물185kg ▲유진상사=오뚜기식품2,619개 ▲(주)쿵스도어 제주이도점=제빵269봉 ▲강순옥님=생활용품10개 ▲금산서당골=축산물140kg ▲김치원=김치20kg ▲나눔베이커리=제빵215봉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229모 ▲던킨도너츠 제주이도점=도너츠65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964개 ▲미인빵=빵84봉 ▲비엔누아즈=제빵405봉 ▲정필이오메기떡=떡90개 ▲제주보리촌=보리빵680개 ▲제주도청 존샘봉사회=잡쌀고추장 100kg ▲잡새방앗간=떡637개 ▲갯어클락=제빵15봉 ▲파파무베이커리=제빵146봉 ▲훈이상사=식료품14개

·기탁문의: 사랑나눔푸드마켓 ·문의전화: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8년 7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 가 결 연 후 원	320,000	610,000
난 처 병 환 아 후 원	40,000	0
자 원 봉 사 후 원	2,895,000	2,895,000
복 지 사 업 후 원	1,070,000	339,860
푸 드 마 켓 후 원	3,140,000	221,06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고치환
- 편집인: 고봉식
- 등록번호: 제주 라 01010
- 창간일: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편집기자: 김승지
- 주소: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디자인리더제주

“당신의 소리 손으로 해보세요”

제21회 제주수어경연대회 성황… 대상에 ‘커다란 나무팀’

(사)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 협회(회장 박춘근)는 지난달 18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당신의 소리 수(手)놓아보세 요’라는 슬로건으로 제21회 제주수어경연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대회는 4세 아동부터 80세 어르신까지 총 12팀, 200여 명이 참여해 수어 노래, 연극, 뮤지컬, 수어연설 등 다양한 분야로 경연을 펼쳤다.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회, 병원, 고등학교, 복지시설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해 눈길을 끈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평균연령 74세인 대한 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자원봉사클럽이 참가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박춘근 회장은 “대회를 통



해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농아인의 공용어인 것을 홍보하고 농아인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대회가 수어 교육권 확보와 의사소통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상자 명단 ▲대상= 커다란 나무(신산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 ▲금상

= 한마음(한마음병원) ▲은상= 예원유치원 누리(예원유치원) ▲동상= 한라(한라태권도) ▲장려상= 실버웃음꽃 자원봉사클럽(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나 너 우리(공립탐라어린이집) ▲인기상= 연극에 미친 녀석들(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심사위원상= 제주여성 A.O.A(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제주감귤 음료로 나눔 실천한다

도사회복지협·개발공사·광동제약·한국협의회 MOU체결



제주감귤 음료를 통한 나눔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는 지난 7월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광동제약(대표 이사 최성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

환),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함께 감귤 농축액을 활용한 음료 나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공사는 감귤가공사업을 통해 생산한 감귤농축액 500톤을 광동제약에 기증하고, 광동제

약은 농축액을 활용한 감귤 음료를 생산해 연내 20억 규모의 제품을 기부한다.

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별 수요를 파악하고 제품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오경수 사장은 “감귤을 활용해 전국의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공사는 음료 지원을 비롯해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에서부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친환경 활동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사회공헌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행사 참여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지난달 19일 제주21세기한중국제교류협회(회장 강영식)가 주관하는 ‘정혜재활원·다

문화가정이 함께하는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행사에 참여했다.<사진>

이날 정혜재활원과 다문화 가정, 중화인민공화국주제주총영사관, 제주21세기한중국제교류협회는 다양한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제주21세기한중국제교류협회는 제주도 민간외교를 위해 2017년 3월에 창립됐다. 협회는 제주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각 분야의 민간인들로 구성됐으며 중국에 있는 사회단체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간의 우호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마치며

‘좋은’ 가치가 한데 모아 지기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서



이무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년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함에도 왜 그 효과는 보이지 않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당연히 생겼다. 그리고 이번 실습을 통하여 필자는 여전히 사회복지가 바로 이 곳에 살아있다고 느꼈다.

현재 이 순간에도 많은 기관들은 이웃과 사회에 좋은 가치를 싣기 위해 일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일선에 집중하느라 바쁜 각 기관들을 한데 모으고, 나누어진 힘을 협력하며, 이 지역의 사회복지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다리’가 부족했음 뿐이었다.

실습의 대부분은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해보고 이에 직접 참여해보는 것이었다. 요컨대 그 첫 번째 역할은 여러 기관 및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중간관리자’였다. 학교 수업에서 배운 것처럼, 환경과 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과 더불어 도내 사회복지기관 사이, 혹은 민간기관과 지자체 사이의 소리통 역할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나아가 도내 사회복지계에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자리에도 참석해보았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의 욕구를 귀담아 듣는 ‘해결사’였다. 여러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그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계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예산부족이나 인식개선과 같이 사회복지의 오랜 고민거리를 단칼에 해결하지는 못해도, 사회복지기관과 지역 전체의 복지를 위해 오늘도 노력 중이었다.

최근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혁명적 변화는 경제와 기술 분야만의 것이 아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인간과 기기사이를 연결한 것처럼 우리의 아주 사소한 일상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 내의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와 민·관의 협력도 그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좋은 가치들이 마음 속에서만, 각자의 발에서만 사그라들지 않도록, 함께 모여 더욱 넓고 큰 꽃밭을 이루도록, 여기 이 곳에서 매일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다.

제주광역푸드뱅크 운영위원회 개최

제주광역푸드뱅크 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섭)는 지난달 8일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자연인 만덕정에서 운영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광역푸드뱅크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운영위원회는 2018년 상반기사업현황 보고와 함께 우수사업장 연수 관련 논의, 오는 9월 8일 제주국제대학



교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2018 제주나눔대축제’ 관련 협조 사항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제주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우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비교조사 결과 발표

제주도의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수준이 전국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홍순봉)은 지난달 23일 김상하·권미혁(더불어민주당)·나경원·김순례(자유한국당)·최도자(바른미래당) 국회의원, 17개 시도의회와 함께 실시한 17개 시도 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실태를

파악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평균점수가 46.44점으로 지난해 결과와 비교해 약 2.5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분야 우수지역으로는 서울, 대전, 제주로 나타났고,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경기, 전북, 전남, 경남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는 전국 평균점수가 71.4점으로 2014년 70.63점 이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점수가 하락한 복지 분야와 달리 지역 간 장애인 교육 수준 격차

가 비교적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분야 우수지역으로는 대전, 울산, 충남, 경남, 제주로 분석됐고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부산, 세종, 경기로 집계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해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보였던 지역별 장애인 복지 수준 격차는 다시 악화되었다”며 “장애인당사자, 단체 등의 민간과 지방의회에서도 민선7기 임기 초반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츠자와수다’ 진행



제주도사회복지관협회(협회장 윤두호)는 지난 7월 31일 우도에서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츠자와수다’를 진행했다.<사진>

이날에는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노후 등기

구 교체(한국전기안전공사)와 이동목욕(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이동방역(동부종합사회복지관)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함께 우도 체육관에서는 세탁(영락종합사회복지관)과 의료서비스(제주권역재활병원), 병무

상담(제주지방병무청), 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상담(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제주도보조기기센터) 등 다채로운 서비스가 운영됐다.

또, 구좌실버들동아리의 색소폰 공연과 한빛누리예술단(전통춤, 민요)의 멋진 문화공연이 펼쳐져 우도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두영 우도노인분회장은 “매년 복지관과 연계기관들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해주고 있어 고맙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자녀 안정적인 정착 지원

제주시 위탁시설인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상철)는 만18세 이하 중도입국자녀 및 다문화가족자녀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인 ‘Together, High-five’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어 구사능력의 미흡과 문화 차이 등으로 한국에서 적응이 어렵고, 또래 관계 형성에 도움이 필요한 중도입국자녀에게 한국어 교육과 사

회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6월부터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진행 중이며 지난달 9~10일 20여명의 중도입국 및 다문화가족자녀를 대상으로 하계캠프를 운영했다.

학생들은 해양경찰청의 협조로 생존수영법을 지도받고 뮤지컬을 관람하였으

며 제주경찰특공대, 동부청소년경찰학교 등을 방문해 직업체험을 하며 힐링과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오는 10월에는 한국문화, 법질서지킴이, 학교폭력추방 등을 주제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해 자녀들의 이중언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키우고, 11월에는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운동을 개최 할 계획이다.

소/식/마/당

(무순)

다문화 가족과 요리 체험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두호)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는 지난달 22일 센터에서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오감만족 책놀이교실’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족과 함께 베트남 월남쌈과 수박화채를 만드는 등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열대야도 피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신나는 여름방학 캠프



함덕지역아동센터(원장 명혜숙)는 지난달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센터 아동들과 함께 렛츠런파크 제주와 함께하는 신나는 여름방학 만들기 ‘야호~여름방학이다’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에코랜드와 돌고래쇼장 등 제주도 일원을 견학하는 등 소중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용인들과 즐기는 물놀이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은 지난달 8일 이용인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내에 에어풀장을 설치해 ‘2018년 여름 물놀이 행사’를 개최했다.

창암재활원 관계자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신경을 쓸 필요 없이 이용인과 직원들이 마음껏 신나게 놀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자립능력 향상 체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양창근)는 지난달 7일부터 10일까지 아동 20명과 함께 서울 일대에서 자립여행을 진행했다.

이번 자립여행은 아동들의 자립 능력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주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팀별여행과 단체여행으로 진행됐다.

힐링 캠프 진행



빛과소금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진옥)는 지난달 16~17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의 지원으로 센터 아이들과 함께 연일 계속되는 폭염을 피해 ‘힐링이 필요해~ Let’s Run!’을 주제로 힐링캠프를 떠났다.

이번 힐링 캠프는 카트와 썰매 체험, 요리, 레크리에이션, 워터파크 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추억 쌓기 체험 실시



제일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순희)는 한국마사회 지원을 받아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 하도리에서 여름캠프를 진행했다.

여름캠프는 승마체험, 물놀이, 대나무 낚시 등 제주 자연에서 힐링 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 소/식/마/당

(무순)

청소년셰프아카데미 참가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윤인호)는 지난 5월부터 8월 10일까지 요리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카페 생느행에서 진행하는 '청소년셰프아카데미'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쉼터 관계자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입소청소년이 요리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운영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제주애덕의집(원장 허윤정 로사수녀)은 지난 7월 26일부터 3일간 제주지역 중·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운영했다.

이번 청소년자원봉사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어르신과 소통 기회 마련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8일 유수암 경로당에서 이용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제주시장애인복지기금사업'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도 봉사할 수 있어요!'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이용인들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는 등 어르신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가족 구성원간 친밀감 강화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소장 홍부경)는 지난 5월부터 농아인 가정을 대상으로 '행복디딤돌, 가족과 소통하는 바람 & 달빛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농아인 가정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족 구성원간의 친밀감과 결속력을 강화하며, 가족간의 소통의 통로를 찾아내고 양성평등 인식 재확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 청원 안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지난달 1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관계자 및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서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아동학대 관련 사진을 전시해 아동학대 심각성과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국민청원 내용과 참여방법을 안내했다.

행복한 부산여행 진행



디딤돌 그룹홈(시설장 송일심)은 지난달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동안 기관 종사자와 아동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은 해피빈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여행은 종사자와 아이들이 함께 해양박물관과 광안리 야경을 구경하고 송도 해상케이블카를 타는 등 제주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고 즐기는 행복한 시간으로 꾸며졌다.

직원 화합·협력 도모



가롤로의집(원장 서영숙)은 지난 7월 31일 추자도에서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직원연수'너와 나의 경계에서 소통을 그리다'를 실시했다.

가롤로의집 관계자는 "연수는 '사탐책' 읽기라는 미션을 통해 '나의 책'을 읽으며 서로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라며 "또 추자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고 재충전의 기회와 직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추억만들기 가족캠프 전개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은 이영섭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지난 8월 18일부터 1박2일 동안 제주 마이테르유스호스텔에서 2018 가족캠프'You&Me 추억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추억만들기 캠프는 이용자, 가족 등 50여 명이 어우러져 물놀이, 가족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찾아가는 문화체험교육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찾아가는 문화체험교육을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내 4개 읍·면·동에서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동에 어려움이 많아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적은 장애인을 위해 맞춤형으로 계획됐다. 프로그램은 지난 7월 애월읍을 시작으로 오는 9~10월에는 외도동, 10~11월 한경면에서 계속 추진될 계획이다.

청소년 자원봉사캠프 개최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석건)은 지난 7월 26일 지역 내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동네방네' 청소년 자원봉사캠프를 실시했다.

이날 캠프는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 집안정리 등 일손을 돕고 어르신들과 함께 할 놀이와 요리를 직접 준비해 마을 경로당을 방문했다. '동네방네'는 매달 1회 청소년들이 모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혼디 모영 '추억 만들기'



주사랑소규모요양원(원장 한영희)은 지난 7월부터 시설 내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혼디 모영'추억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주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을 통해 미술, 놀이, 원예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만족도와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신체 및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힐링스토리 프로그램 실시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두호)은 지난달 17일까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과 동제주복지관 조천읍센터에서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힐링스토리' (전통놀이, 방송댄스)를 개강했다.

프로그램은 컴퓨터, 핸드폰 게임에 익숙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신체놀이를 통해 협동심을 배우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발행인 기고

“제주형 복지”의 나침반을 찾아 나설 때”

- 열아홉 번째 사회복지의 날에 부쳐 -

국회 예산정책처의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0.5%로 전국 평균 27.1%에 비해 6.6% 낮아 세종시(19.1%)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예산규모가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전국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하고 보니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민간 사회복지계에서는 늘 사회복지예산 규모의 확대를 요구해 왔다. 최근 들어 ‘복지기준선’ 마련에 대한 요구도 하고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요구’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복지현장의 전문역량을 동원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분석 자료도 내놓고 싶지만 한계가 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활용 가치가 있는 ‘복지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와 관련된 예산, 인력, 자원 등 어느 하나 속 시원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복

지 데이터’가 없다. 그나마,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의해 4년에 한번 조사되어 오던 ‘제주사회복지지표’가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되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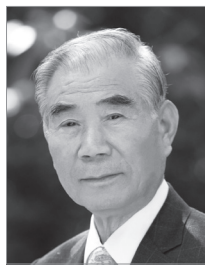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 각종 데이터는 기초자료가 된다.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면 합리적인 정책결정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동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 바탕이 되었던 ‘복지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그런 데이터들이 공유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올해로 열아홉 번째 맞는 기념일이다. 그런데 ‘기념’만으로 ‘사회복지의 날’을 보내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크다. 바라건데 앞으로 ‘사회복지의 날’은 ‘기념’에 더해 그동안 우리 사회복지가 걸어 온 방향을 돌아보고 가야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한다. 그 토론의 장 한 가운데는 축적된 ‘복지 데이터’가 나침반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한다.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가야할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야 속도가 의미를 가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줄 나침반은 필수품이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양적변화가 축적되면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다. ‘복지 데이터’ 관리를 통해 양적변화를 축적하고 그를 분석해 복지환경의 질적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은 ‘제주형 복지’를 만들어 가는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열아홉 번째 맞는 사회복지의 날 ‘제주형 복지’의 방향을 제시할 나침반을 찾아 나설 것을 제안한다.



고치환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

기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회를 만들자



강중열

한림읍 주민자치담당

열린혁신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라는 비전하에 국민이 정책결정을 주도하고 실현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국정운영 방안을 모토로 하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인가?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이다.

우리 한림읍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보다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한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한수풀 행복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한수풀 행복기동대는 1인가구의 증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범위 외의 복지소외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는 점점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으로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인적 안정망을 구축하여 ‘이웃이 이웃을 돕는 지역사회복지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한수풀 행복기동대는 지역특성상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며 결식우려로 기본적 의식주 해결이 필요한 독거노인·중장년 1인가구·다문화가정 등 복지소외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과 함께 이들을 발굴(행복만남)하고 결식우려를 해소(행복애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행복가꿈)을 하고 있다.

행복만남은 지역주민 및 자생단체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소외계층을 발굴 방문하는 것이다. 21개 마을에 6개조를 편성하여 조별 매주 3가구 이상을 방문, 필요시 기초수급자신청·사례관리대상 선정하여 연계하는 것이다.

행복애찬은 이렇게 발굴된 결식 우려 가구에 협약된 행복식당의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거동 불편 또는 중증질환을 가지고 계신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에 주2회 밑반찬을 제공하는 것이다.

행복가꿈은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한림읍은 읍민 모두 공공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민관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칼럼

술 이야기

진건의《술 권하는 사회》가 발표된 시기는 1921년이였다.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설움에 술 마시는 것 외에 달리 별일이 없는 지성인의 절망적 시대상황을 묘사했다. 새벽에 만취되어 귀가한 남편에게 아내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누가 이렇게 술을 권했소?”라고 묻는다. 남편은 “조선 사회가 술을 권한다.”라고 응답하지만 남편의 내면에 내재된 심오한 고뇌를 아내는 알 수가 없다. 방황의 늪으로 향하는 남편을 향해 아내는 원망어린 독백으로 탄식한다. ‘이 몸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가’

사람들은 왜 술 권하는 사회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오늘날의 음주문화는 시대적 절망에 지성인이 술꾼이 되었던 그때와는 다르다. 지성인의 할일 없는 세상은 아니니까.

그때 농경사회가 이제 글로벌정보화시대로 변했다. 빠르게 진행된 근대화 과정에서 천민자본주의 신흥부자들이 탄생했다. 부가 소수에 편중되며 부익부빈익빈으로 치닫고 황금만능주의 풍조가 만연하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민주화가 주창되지만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소득이 향상되고 생활은 편리해졌으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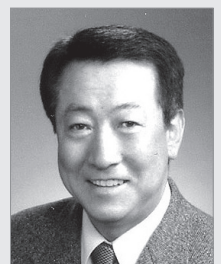
풍요 속 빈곤과 민중 속 고독 늘어

핵가족화로 일인가구가 계속증가하며 나 홀로 시대가 전개 되지 오래다. 과학이 첨단화 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풍요 속의 빈곤과 민중속의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난다. 중·장년세대는 급진적인 변화를 거부하며 기존문화에 안주하려는 관성의 법칙도 작용한다.

술은 시류(時流)를 차치하고 삶의 희로애락에 수반되는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다. 우리민족은 상고 때부터 여러 가지 제의(提議)를 만들어 음주가무를 즐겼다. 예로부터 술과 음식에 대한 후덕한 인심과 관용적인 태도 때문에 사교적 음주가 권장되었다. 마치 음주는 사회생활의 필수적 조건처럼 자리 잡게 되었다. 음주는 자의적 애주습관과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억지로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오늘날의 음주는 복잡한 세상사만큼이나 동기가 다양하다. 집안에서는 가정의례시마다 으레 술이 따라 다닌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우선 술을 마시는 것이고 경사스런 일을 축하할 때도 한잔을 권하는 게 통례이다.

술은 생활에 여유를 주는 활력소인데 절제하지 못해 각종일탈과 폐해를 초래한다. 또한 과음하면 간경화 등 치명적 질병을 유발한다. 인간에게 이성과 감성은 같은 힘이 작용하는데 과음하면 감성이 이성을 능가하여 돌출행동을 하게 된다. 술이 술을 부른다는 과음(過飲)의 철칙(鐵則)을 깨는 결단이 꼭 필요하다.



문익순

전 제주4·3사업소장

'JDC 이음 일자리 사업' 수기 공모 수상작

“나는 잠든 아이 머리카락 쓰다듬으며... 아프지 마라 얼른 나아라”

모두 33점 응모... 지난달 17일 시상식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와 제주YWCA고령자인재은행(회장 고미연),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소장 강수영)은 지난달 17일 오션스위츠 호텔에서 'JDC 이음 일자리 사업'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월 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이음 일자리 1차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진행됐으며 총 33점

의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결과 최우수상에는 진우석 씨의 '원원원하는 꿈자람 책방'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김선형 씨의 '거대한 자연의 변화, 오묘한 생명의 신비'와 양태문 씨의 '내 인생 2막은 왕이메 오름에서'가 장려상에는 이동일 씨의 '인생 3모작', 이승호 씨의 '오름의 품속으로 살포시 안기다', 김예숙 씨의 '꿈이었던 사서로서의 시간을 되돌아보며...'가 선정됐다.

※ 이 중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작의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원문은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최우수상

원원원하는 꿈자람 책방



움직이는 도서관 사서 진우석

삼 십여년의 직장생활을 마감하고 JDC이음 일자리 사업 '움직이는 도서관사서'로 선발됐다.

저는 S중앙병원에 마련된 꿈자람 책방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꿈자람 책방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과 보호자의 정서 안정과 함께 치료에 지친 이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개관했다.

책방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 600여권을 보유한 꿈자람 책방은 어린이 환자들이 병실을 떠나 쉴 수 있는 장소였다.

어느 날 그림책들을 정리하는 제 곁에서 한 어머니가 링거를 꽂은 아이에게 '백조의 호수'를 읽어주고 있었다.

제 아이가 어릴적 병원생활을 할 때 읽어주던 '백조의 호수'가 떠올랐다. 아이는 몇

번이나 다시 읽어 달라 조르다가 잠이 들었다. 나는 잠든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프지 마라. 얼른 나아라.

엄마의 품에 안겨 링거를 꽂은 손을 꿈지락 대는 어린 환자의 쾌유를 빌면서 저는 다시 책을 정리했다.

이제 꿈자람 책방의 이용자 등록자 수가 250여명으로 어린이 이용자보다 일

반환자 이용이 늘었다. 방문하는 분들의 얼굴도 차츰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꿈자람 책방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JDC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근무자와 이용자 모두를 원원원하게 하는 꿈자람 책방을 탄생시켰다. 그 곳에서 인생모작을 맞이하게 되어 행복하다.

우수상

거대한 자연의 변화, 오묘한 생명의 신비



오름매니저 김선형

새별오름으로 배정되었을 때 오름을 올라다보면서 이곳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까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생각은 기우였음을 알게 됐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조금은 재미있는 시간도 되었다.

하루는 아침 일찍 출근했는데 나이 많은 남자 분이 아직 식사를 안했다면서 식

사할 수 있는 곳을 물었다. 주변에는 식당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기 때문에 마을로 다녀오시라고 안내했다. 정류소까지 같이 가면서 오름에 대한 물음에 답해드렸는데, 고맙다고 인사를 해 주셔서 기뻐했다.

한 번은 탐방객이 주변의 다른 오름들을 물어봤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해 얼굴이 빨개졌다. 주변의 오름에 대

한 내용 등 많은 지식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 외에도 탐방객들이 오름이 참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실 때에는 마치 오름의 주인인듯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

새별오름은 참으로 변화무쌍하다. 안개가 낄 때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다가, 순식간에 그 안개가 걷히면서 오름이 딱하니 앞에 모습

을 보이기도 한다. 들불 축제로 타버린 오름 곳곳에서 들꽃들이 피었다 지고, 다음에 가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를 매료시킨다.

이음 일자리가 계속되어 나의 이 작은 행복이 이어졌으면 하는 욕심을 내어본다.

끝으로 저희들에게 이런 경험을 갖도록 일자리 사업을 계획해 추진하신 관계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수상

내 인생 2막은 왕이메 오름에서!



오름매니저 양태문

퇴직하면 여행도 가고 즐겁게 생활하리라 마음먹었는데 막상 1년이 지나니 무료해 지기 시작했다.

퇴직하기 전 선배들이 "최소한 5개의 동호회에 가입해야 월·화·수·목·금요일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주말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귀등으로 듣고 말았다.

틈틈이 배운 중국어로 관

광안내 봉사도 하고 환경도 부전공 했으니까 내 고장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면 보람된 인생 2막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바로 이 때 친구로부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중장년 일자리 이음사업으로 '오름매니저'를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해 왕이메오름 근무를 하게 되었다.

왕이메 오름매니저는 총 4명으로 모두 수요일 오전, 금요일 종일 근무한다.

등반로 입구를 지나면 삼나무 숲이 나오고 산등성이를 올라가면 나즈막한 봉우리에 우리들만의 설만한 조그만 공간이 있다.

거기에 네 명이 앉아 폭파인 굼부리를 바라보며 서로 소통하다 보면 내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은 어느덧 깨

끗이 사라져 버린다.

만약 오름매니저가 되지 않았다면 하루종일 집에서 티비만 보고 있었을텐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왕이메오름 신선이 된 느낌이다.

내 몸과 마음을 힐링해 줄 뿐만 아니라 용돈도 벌수 있게 해 주는 일석이조의 '중장년 일자리 사업 '오름매니저'야말로 내 인생 2막을 풍부하게 열어 줄 것이다.



포용적 복지로 제주의 희망을 밝히다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2018 제주 나눔 대축제

일시 | 2018. 9. 8(토) 10:00~17:00
장소 | 제주국제대학교 운동장



대중교통 이용시 360,365,425,426번 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 일시: 2018. 9. 8(토) 11:00
- 축하공연,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 기념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다함께 하는 다짐 등
- ※ 기념식에 참가하시는 분께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2018 제주 나눔 대축제

- 일시: 2018. 9. 8(토) 10:00 ~ 17:00

※ 나눔실천행사

- 1,000인분 비빔밥 나누기 '삼춘 밥먹영 갑씨'
- '나눔상자 만들기'
- '게임으로 즐기는 나눔'

※ 상설부스 운영

- 나눔체험마당, 나눔홍보마당
-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나눔장터'
- 나눔도서관(도서기부, 교환, 무료배부 등)

※ 부대행사 코너

- 나눔을 생각하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 드론, 모형항공기, 프라모델, RC자동차 경진대회 및 체험
- 무료간식 코너

※ 학생자원봉사 인증

- 행사기간 중 축제 모니터링단 운영에 참여하는 초·중·고등학생에게는 '사회복지자원봉사 2시간을 인증해 드립니다.'